

변동성의 4가지 축: 실적의 역설과 지정학적 연쇄 반응

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 속 코스피 급락 원인 분석
및 글로벌 매크로 전략 점검

[CONFIDENTIAL / EXECUTIVE SYNTHESIS]



호재의 둔화 (Domestic)

삼성전자 107조 역대급 실적에도 코스피 6,625선(-2.62%) 급락. 선반영 인식 및 대규모 기관/외인 차익실현.



AI 기술주 차별화 (US)

OpenAI 매출 우려로 시장 전반의 AI 수혜주 투자 심리 위축. 나스닥 1.25% 하락 주도.



유가발 인플레 리스크 (FICC)

중동 지정학 긴장 격화 및 호르무즈 해협 통항 급감. WTI \$91 돌파하며 인플레이션 공포 재점화.



밸류에이션 제약 (Macro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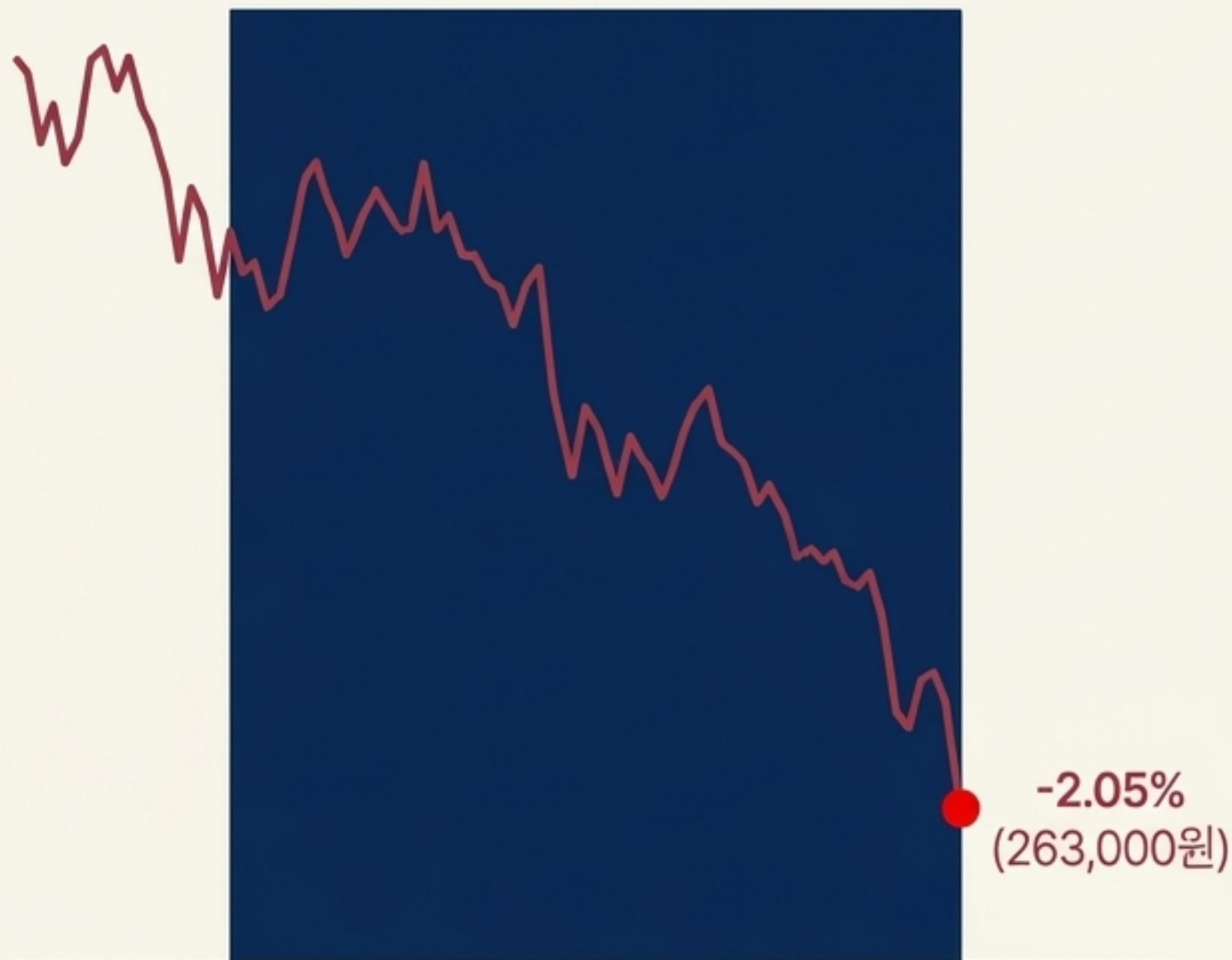
미 국채 10년물 5.24% 돌파. 환율 1,342원 하락(원화 강세)에도 불구하고 고금리가 증시 밸류에이션 억제.



실적의 역설: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무너진 투심

Paradox Chart

삼성전자 3분기 매출: 107조원



지수 현황

KOSPI: 6,625.93 (▼ 177.97pt / -2.62%)

KOSDAQ: 892.27 (▼ 6.16pt / -0.69%)

Buy the Rumor, Sell the News

외국인(-130.7만주) & 기관(-408.8만주) 쌍끌이
대규모 순매도 vs 개인(+525.9만주) 나홀로 순매수.

역대급 실적이 이미 주가에 선반영되었다는 인식 하에
대규모 리밸런싱 매물 출회. 코스닥 제약지수 9,000선 반납
등 펀더멘털보다는 '수급 부담'이 시장을 압도한 장세.

수급 이동: 은행 및 방어주로의 자금 피신

방어/전통 (Defense/Traditional)

은행 (Bank) +2.00%



제조업 (Manufacturing) +1.49%



보험 (Insurance) +1.34%



금리 상승기 방어적 수익 추구 자금 유입.

경기민감/성장 (Cyclical/Growth)

증권 (Securities) -3.47%



유통업 (Retail) -3.42%



건설업 (Construction) -3.18%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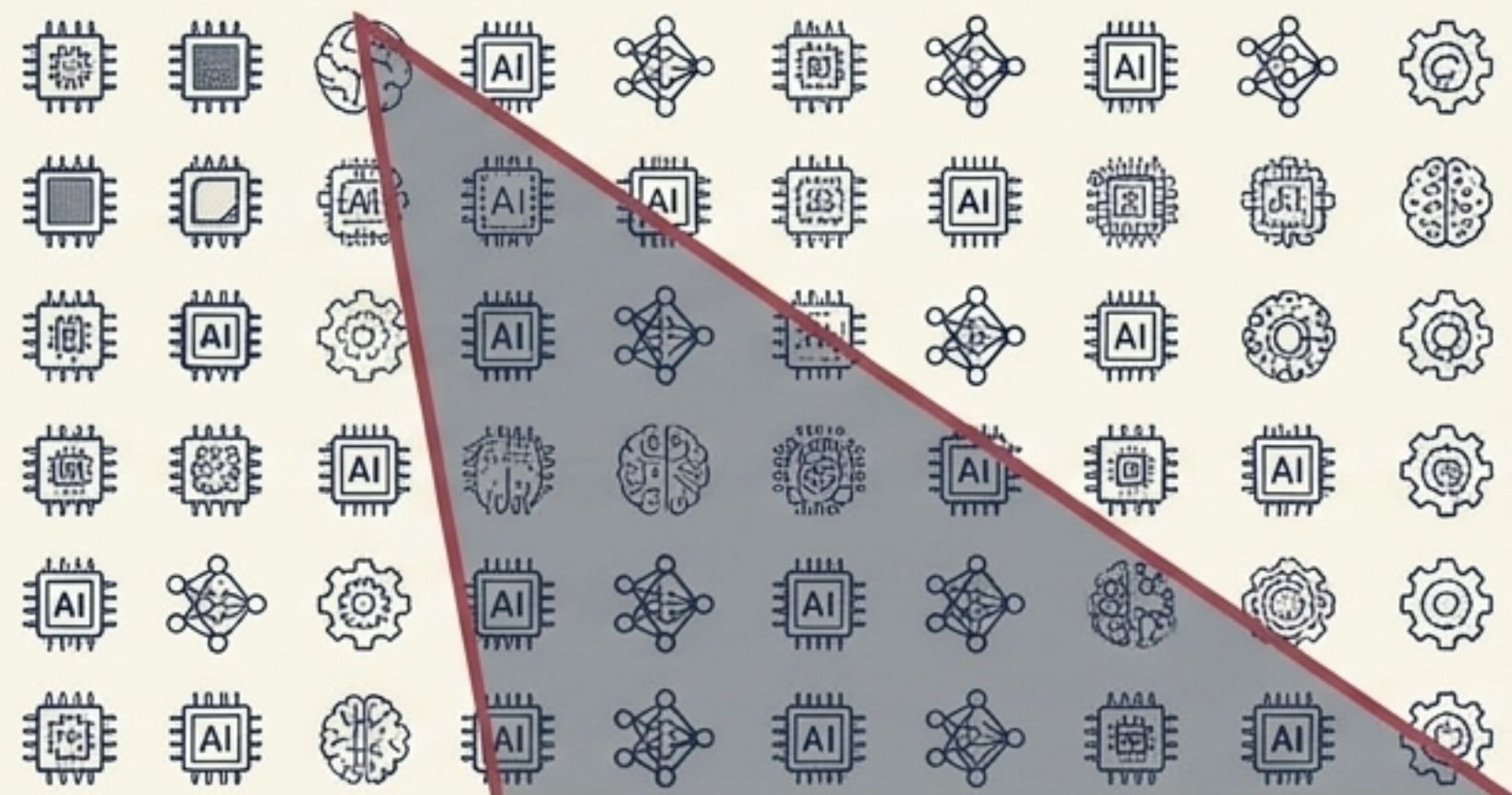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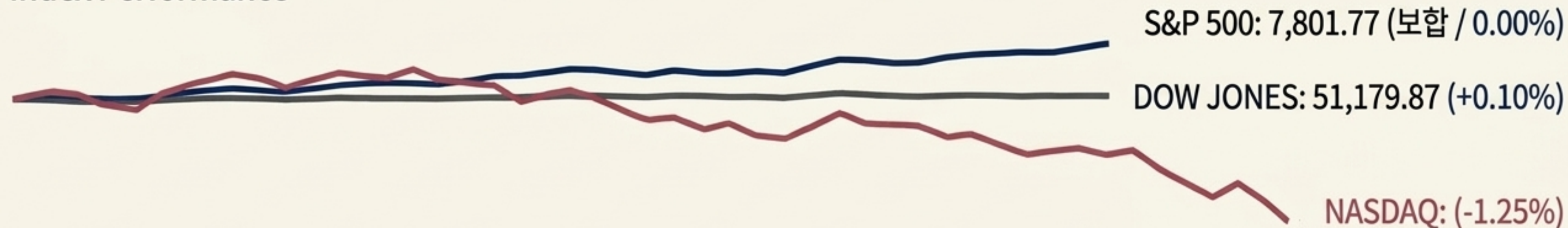
금리 및 경기 민감주 직격탄.



이차전지 대장주 선방 (LG엔솔 403,000원 / +3.07%).
전체 시장 급락 속에서도 개별 모멘텀 방어력 입증.

뉴욕 증시: AI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 대두

Index Performance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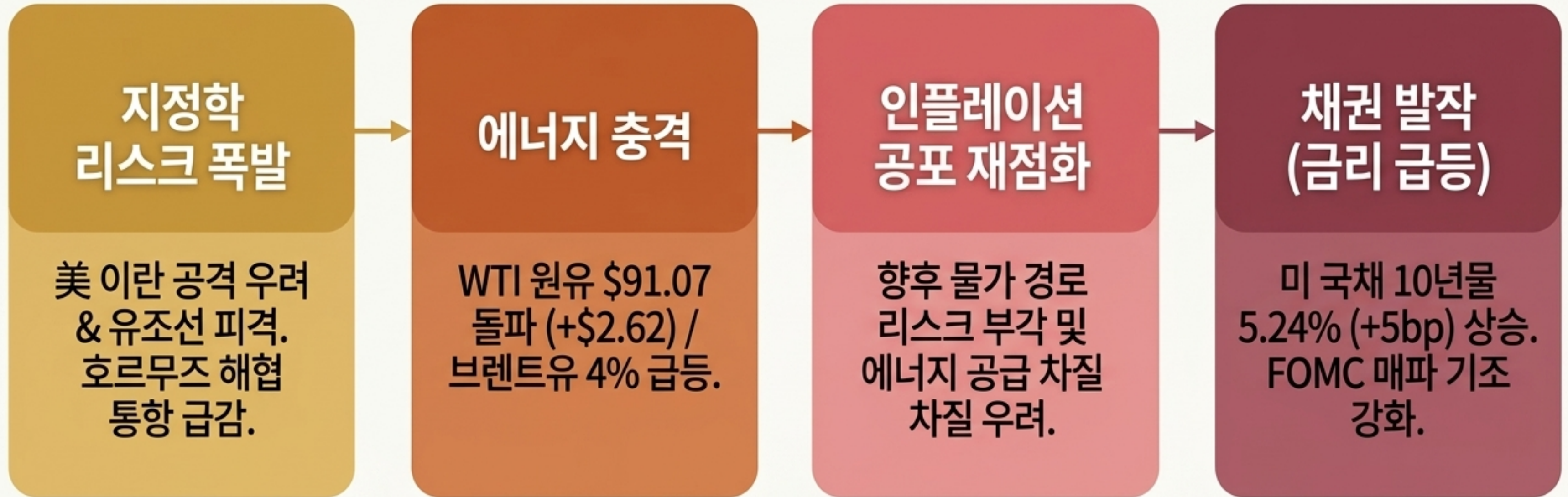
AI 투심 위축

OpenAI 매출 기대치 미달 우려가 촉발점.
시장 전반의 AI 수혜주 및 반도체 섹터 투자 심리를
급격히 위축시키며 나스닥 하락 주도.
기술주 약세와 방어주 혼조의 전형적인 디커플링 장세.



치폴레(Chipotle) 6%대 급등.
스타벅스 인수 검토 보도에 따른 개별주 모멘텀 부각.

FICC 시장: 중동 리스크가 촉발한 매크로 나비효과



Insight: 이란 지정학 리스크가 단순한 유가 상승을 넘어,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꺾고 자산 시장 전반의 '할인율'을 극단적으로 높이는 핵심 트리거로 작용 중.

금리 vs 환율: 충돌하는 매크로 시그널



미 국채 10년물
(5.24%)

주식 시장 밸류에이션의
구조적 제약 요인.
FOMC 매파 기조 지속.



원/달러 환율
(1,342.66원, -5.30원)

달러 인덱스 약세(0.5, -0.32)
및 유로 강세 반영.
외국인 수급엔 긍정적 요인이나
금리 부담에 상쇄됨.

금(Gold)의 기현상

금(XAU) \$4,985 (+\$18).
중동발 안전자산 선호 지속으로
절대 가격 상승.

그러나, 5.24%에 달하는 높은 국채
금리 부담으로 금 ETF는 최근 3개월간
10% 안팎 하락하는 기현상 발생.

무수익 자산(금)의 한계 노출.
비트코인은 ETF 순유입으로
\$67,350(+\$1,240) 반등.

글로벌 증시 디커플링: 각자도생의 시장



중국

상하이 3,215.00 (+0.45%)
/ 항셱 (+1.18%)

Buy China 부활

4년간의 '셀 차이나' 종료.
글로벌 펀드 중국 주식
비중 상향('중립' 전환).
본토 증시 정상 거래 속
자금 유입.



유럽

DAX 24,998.00
(+0.80%)

지정학 헤지

우크라이나 평화협상
기대감 및 방산주 중심의
강세 시현.
STOXX 50 (+0.62%).



일본

닛케이 56,734.00
(+0.46%)

환율 효과

엔화 약세에 기반한
수출주 중심의
방어적 강세.



미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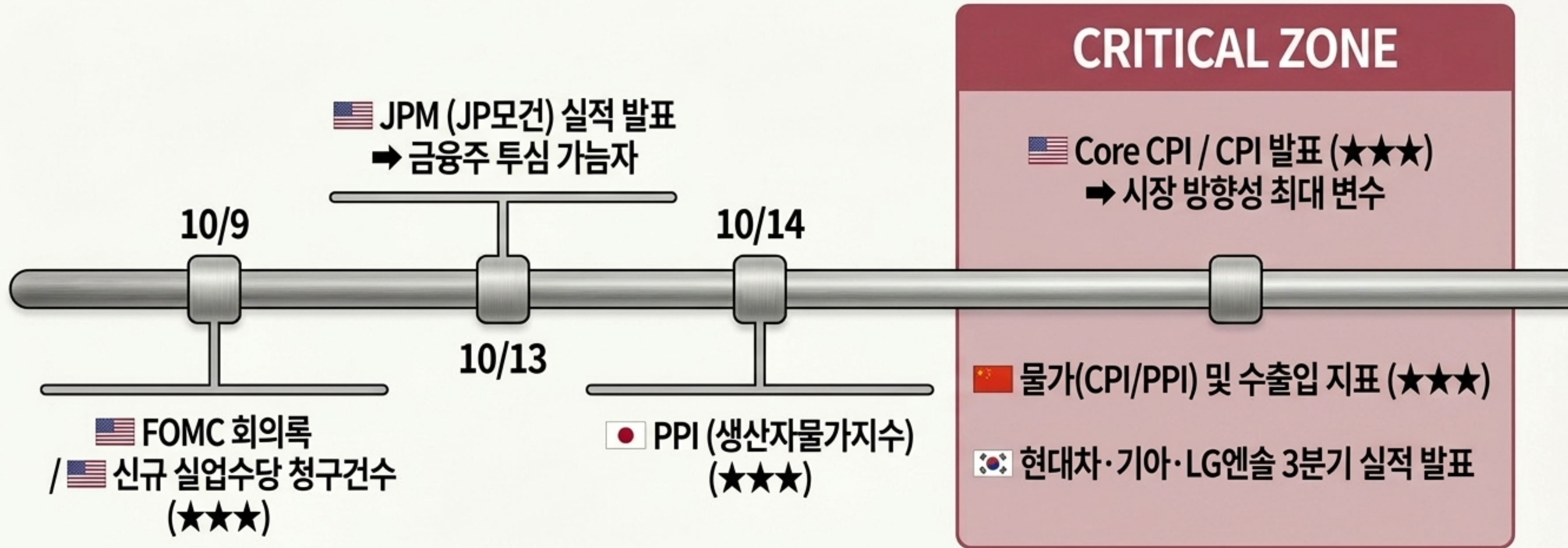
나스닥 (-1.25%)

성장주 한계

AI 모멘텀 둔화 및
고금리 타격에 따른
자금 이탈.

글로벌 자금이 고평가된 미국 기술주에서 이탈하여, 저평가된 중국 본토 및
방어적 성격의 유럽/일본으로 분산 이동하는 구조적 리밸런싱 국면.

주간 촉매제 레이다: 인플레이 지표와 실적의 시간



10월 15일 미국 CPI 결과에 따라, 최근 유가 급등(\$91 돌파)이 실제 물가 경로에 미친 영향이 수치로 확인되며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가 재조정될 전망.

전략적 결론: CPI 확인 전까지 방어적 스탠스 유지

핵심 요약: 반도체 호실적 선반영 완료 + 유가/금리 동반 상승 = 전형적인 'Risk-Off' 장세 진입

단기 (Short-Term)

중기 (Mid-Term)

공격
(Offense/
Accumulate)

Action 1: 단기 헤지

에너지(유가 급등 수혜) 및 방산(유럽
평화협상/중동 리스크) 섹터 비중 확대로
단기 포트폴리오 변동성 방어

방어
(Defense/
Hedge)

Action 2: 관망 및 리스크 관리

10월 15일 미국 CPI 지표 발표 전까지
기술주/성장주에 대한 공격적 비중 확대 자제

Action 3: 중기 매집

코스피 6,600선 하단 지지력 확인 필수.
바닥 확인 시, 펀더멘털이 견조한 우량주(이차전
지/실적주) 중심의 분할 저점 매수 접근 유효